

조계종 종정 26일 만장일치로 추대

후보 법전·승산·성수 스님



◇ 11일 종정 추대회의에서 종정 후보에 추천된 법전(왼쪽) 승산(오른쪽) 성수(가운데) 스님.

조계종 제 11대 종정 후보로 법전 스님(法傳 海人사 방장), 승산 스님(崇山 화계사 조실), 성수 스님(性壽 황대선원 조실)이 추천됐다. 오는 26-27일 열리는 추대회의에서 이들 3인의 원로 스님중 새 종정이 만장일치로 추대된다.

조계종은 11일 오전 총무원 4층에서 종정 추대회의를 개최하고, 법전 승산 스님을 종정후보로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종산 환안 녹원 성수 지관 동촌 스님 등 원로 6명과 총무원장 정대, 종회의장 지하, 호계원장 월서 스님

등 총 9인을 전형위원으로 선정하고, 종정 추대를 위임한 뒤 오전회의를 마쳤다. 하지만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도 종정추대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해 법전, 승산, 성수 스님 등 3인의 원로를 후보로 추천하고 추대회의를 26일로 전격 연기했다. 이날 종정추대가 연기된 것에 대해 기획실장 현고 스님은 "종정스님의 위상을 생각하여 몇 번 추대회의를 거치더라도 여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본래부터 총무원장 스님께서 갖고 있던 생각"이라며 "종정후보 당사자 스님이나 어른스님(원로의원), 해당문도 스님들이 차분히 호흡 조절 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다음 회의에서 만장일치 추대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원로회의의 수석부위원장 종산스님도 "추대회의가 열리는 26일전에 예비모임을 갖고, 추천된 3분 중 한분으로 의견을 조율하여 투표 없이 원만하고 여법하게 추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종정추대가 연기된 데 대해 종단의 한 중진스님은 "추대위원 스님들의 뜻이 법전 스님과 승산 스님으로 비슷하게 양분되어 있어 만장일치 합의추대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리이동에 따른 문중안배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연기된 것 같다"고 조심스런 분석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종정추대가 이뤄지면 이에 따른 종단 수뇌부의 자리이동이 예상된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김원우 기자 wkwim@buddhania.com

법전 스님

봉암사 결사 참가... 선 수행 강조

법전 스님은 1925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법호는 도림(道林)이다. 39년 불갑사에서 설호스님을 계사로 설제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44년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48년 장성 백암사에서 만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49년 봉암사 결사에 참가하였으며, 51년 통영 안정사 천제굴에서 성철 스님을 모시고 공부에 매진했다. 52년 이래 수십년간 창원 성주사, 문경 갈평토굴, 태백산 도솔암, 범어사, 해인사, 등 제방선원을 다니면서 참선수행했다. 67년 해인사 유나를 지냈고, 종회의장, 총무원장, 해인사 주지, 해인총림 부방장을 역임했다.

승산 스님

해외 포교 선구자... 군승제 시행

승산 스님은 1927년 평남 순천에서 출생, 법호는 행원(行願)이다. 47년 수덕사에서 고봉스님을 은사로 출가, 54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49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50년 수덕사에서 하안거 이래 11안거를 성단했으며, 51년 마곡사 대교과를 졸업했다. 스님은 60년 대한불교신문사를 설립했으며, 61년 총무원 총무부장을 맡으며 군승제도를 시행했다. 스님은 66년부터 일본, 홍콩,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남아프리카에 흥법원을 개설했다. 87년 수덕사에서 '제1차 세계일화대회'를 개최하고, 52년 서울 화계사에 국제선원을 개설했다.

성수 스님

총무원장 역임... 선원서 남자 지도

성수 스님은 1923년 경남 울산에서 출생했으며, 법호는 환산(桓山)이다. 44년 범어사에서 성합스님을 은사로 출가, 47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44년 범어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10하안거를 성단했으며, 67년 조계종 교무부장, 조계사 주지, 68년 범어사 주지, 78년 세계불교지도자대회 일본주최 한국대표, 81년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절약을 숭상수행하는 담백한 성품의 성수 스님은 참선을 생활화하며 선원에서 남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대웅전 까지 짓밟다니...

재가연대·대불련 등 종로서장 파면·사과 요구

지난 10일 경찰의 조계사 법당 난입사태와 관련해 불교계의 규탄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사태 이후 이대길 서울지방법원 청장이 조계사를 방문해 공식 사과했지만, 재가연대, 대불련, 조계사 청년회 등 대부분의 불교단체들은 사과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종로경찰서장 파면 및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불자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대낮에 수백 명의 경찰이 조계사에 진입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대웅전을 군홧발로 난입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만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경찰의 대웅전 난입이 범죄 중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불자들의 충격은 큰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경찰이 불교를 '만민에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계사의 공권력 진입이 조계종 총무원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총무원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재가연대와 대불련, 청정화합 시민연대 등은 14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총무원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함께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교계단체들도 이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가연대가 확인한 총무원 측의 경찰병력 투입요청 문서에는 '발견조직원들이 10일 13시40분경 조계사 경내에 불법으로 들어와 종단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불자들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조원들을 퇴거시



◇경찰이 발전노조원을 연행하기 위해 조계사 대웅전에 난입하고 있다. 사진=진보넷제공

호 요청을 했다는 사실 외에 공권력 투입 요청 사실을 감춰왔던 총무원 측으로는 어떻게 든 명확한 경위를 밝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이번 사태는 지난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조계사 대웅전이 유린당한 이후 또다시 공권력에 의해 법당이 짓밟혔다는 집과 불교계를 가법게 보는 경찰에 대한 불자들의 분노가 식을 줄 모르고 있어 단시일 내에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무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불교계 내부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명우 기자

"불교문화학 정립할 터"

백제 불교문화대학 개설 사재동 교수



20년 전 불교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대전에 중앙불교대학(대전불교대학)을 건립하고 포교에 나선 사재동 교수(69·충남대 명예교수, 20대 후반부터 대전지역 재가신도들의 모임인 달마회 활동을 시작으로 대전거사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

◆특별하게 대학이름에 '문화'를 붙인 이유는. "불교문화학을 전공하면서 미술과 음악 무용 등 다른 분야를 모르고는 제대로 연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해 알게 됐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불교문화를 접하면서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다. 그래서 불교문화를 보급하는 것이 포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불교문화대학을 개설하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불교문화보급에 여생을 바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백제문화대 개설과 함께 한국불교문화학회 창립한 취지. "현재 30여명의 각 분야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불교문화학회는 불교문화를 대중화하는 것 외에 불교문화학회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연구 성과

'포교 도움' 문화대학 개설

학술제·특강·각종 공연 등 계획

한 활동을 벌여왔던 사재동 교수는 자신의 전공인 불교문화학을 전공하면서 불교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왔다.

그런 그가 지난달 말에 한국불교문화학회를 창립한데 이어, 이달 2일에는 백제불교문화학회에 불교문화대학을 개설하고 불교문화 대중화에 나섰다. 불교문화학회 초대 회장이자 백제불교문화대학장을 맡은 사재동 교수로부터 취지와 계획을 들었다.

◆백제불교문화대학이 2일 개강했다. 일반 불교교양대학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조계종 포교원의 전문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다른 불교대학과 같다. 다만 불교문화에 역점을 둔다는 것이 특징이다. 불교문화대학에서는 문학·음악·미술·무용·민속·문화재 언어·복식·음식·다도 등 불교의 모든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마련돼 있으며, 19명의 대학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가 26명이 강의를 맡는다. 처음 1년간은 교양과 정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불교문화이나 미술 등 각 분야의 연구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를 일반에게 알리고, 학자들간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학회에는 일반인들의 참여도 가능하다. 교수들은 정회원으로 두고 일반인들은 일반회원으로 구분해 운영할 생각이다." ◆불교문화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불교문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는 많았지만 불교문화학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정리되지 않았다. 종교나 사회 각 분야의 문화학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불교문화도 문화학 차원에서 접근하고 연구해야 한다. 따라서 불교문화학회는 불교문화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역량을 결집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우선 6월1일 갑사에서 창립총회와 함께 '불교문화학의 방향과 방법'을 주제로 기념학술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불교문화제를 개최하고 불교문화 특강 및 각종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ihan@buddhania.com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하세요!
*저회번호 변경이나 성명변경 원하실 때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취임 대법회

<p>모시는글</p> <p>거룩한 彌勒前에 歸依 합니다. 부처님의 慈悲光明이 敎界 大德큰스님과 四部大衆 十方諸位께 늘 함께 하시기를 祈願 합니다. 금번 本宗에서는 第十一代 總務院長 深溪 法輪 大衆師 就任法會를 奉행코저 하오니 公私多忙 하시더라도 인연된 모든 불자들께서는 參席 하시어 이 法會가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0" style="width: 100%;"><tr><td style="width: 33%;"><p>증명</p><p>부총정사서실장 총회의장 부의장</p></td><td style="width: 33%;"><p>증정</p><p>태암(泰岩) 법철 도명(道明) 법천(法天)</p></td><td style="width: 33%;"><p>학암(鶴岩)</p><p>지암(芝岩) 교직(教憲) 혜정(慧定) 강월(江月) 도선(道仙) 학산(鶴山) 학림(學林) 덕암, 혜산(德岩, 慧山) 지암(芝岩) 혜철(鎚鐵) 원상(圓象)</p></td></tr><tr><td><p>사정원장 교육원장 연구원장 참선원장 참선부원장 포교원장 홍보원장 사정위원 부산교구원장 경남교구원장 충남교구원장</p></td><td><p>총무부장 교무부장 재무부장 사회부장 규정부장 교화부장 교육부장 연구부장 포교부장 홍보부장</p></td><td><p>성암(聖岩) 법일(法一) 혜명(慧命) 진성(振性) 대광(大光) 일공(一空) 능인(能仁) 자장(慈藏) 정각(正覺) 용섭(龍燬)</p></td></tr></table>	<p>증명</p> <p>부총정사서실장 총회의장 부의장</p>	<p>증정</p> <p>태암(泰岩) 법철 도명(道明) 법천(法天)</p>	<p>학암(鶴岩)</p> <p>지암(芝岩) 교직(教憲) 혜정(慧定) 강월(江月) 도선(道仙) 학산(鶴山) 학림(學林) 덕암, 혜산(德岩, 慧山) 지암(芝岩) 혜철(鎚鐵) 원상(圓象)</p>	<p>사정원장 교육원장 연구원장 참선원장 참선부원장 포교원장 홍보원장 사정위원 부산교구원장 경남교구원장 충남교구원장</p>	<p>총무부장 교무부장 재무부장 사회부장 규정부장 교화부장 교육부장 연구부장 포교부장 홍보부장</p>	<p>성암(聖岩) 법일(法一) 혜명(慧命) 진성(振性) 대광(大光) 일공(一空) 능인(能仁) 자장(慈藏) 정각(正覺) 용섭(龍燬)</p>	
<p>증명</p> <p>부총정사서실장 총회의장 부의장</p>	<p>증정</p> <p>태암(泰岩) 법철 도명(道明) 법천(法天)</p>	<p>학암(鶴岩)</p> <p>지암(芝岩) 교직(教憲) 혜정(慧定) 강월(江月) 도선(道仙) 학산(鶴山) 학림(學林) 덕암, 혜산(德岩, 慧山) 지암(芝岩) 혜철(鎚鐵) 원상(圓象)</p>						
<p>사정원장 교육원장 연구원장 참선원장 참선부원장 포교원장 홍보원장 사정위원 부산교구원장 경남교구원장 충남교구원장</p>	<p>총무부장 교무부장 재무부장 사회부장 규정부장 교화부장 교육부장 연구부장 포교부장 홍보부장</p>	<p>성암(聖岩) 법일(法一) 혜명(慧命) 진성(振性) 대광(大光) 일공(一空) 능인(能仁) 자장(慈藏) 정각(正覺) 용섭(龍燬)</p>						

●일시: 불기 2546년 3월 22일(금요일) 오전 11시
●장소: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기술리 쌍미루사(雙彌勒寺)
●전화: 031-672-3353
●총무원: TEL 02-415-1602, 1634, 1688
FAX 02-415-1631

大韓佛敎 法相宗 總務院長 就任 準備 委員會 委員長 總務院 副院長 海月 合掌